



박소현의 섹.시.토.크

연애하는 1년 동안 달걀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탓인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밤이면 밤마다 K에게 정신없이 덤벼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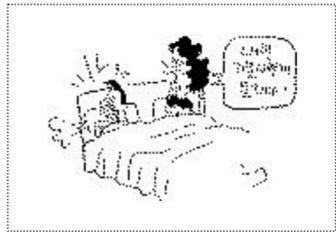
두 사람 모두 섹스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한동안은 초보답게 탐구하는 정신으로 잠자리에 입했다.

남편은 K와의 섹스가 안정권에 접어들자 결혼 전에 열심히 본 야동에 등장하던 체위들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요구는 많아지고,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아내를 향한 불만과 불평도 늘

어났다. 하다못해 콘돔 사용에 관해서도 불평을 늘어놓았다. 두 사람은 결혼하면서 얻은 매출급을 갖기 위해 아이는 2년 뒤에 갖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다.

“그냥 네가 피임약 먹으면 안돼?”



“피임약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다잖아.” “콘돔 끼면 꼭장갑 끼고 하는 기분이란 말야.” 이런 대화가 일주일에 한번은 오가야했다.

를 향해, 흘러듯 이런 말을 했다. “너는 조이는 느낌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들 말 들어보면 삽입하면 느낌이 확 온다

는데, 나는 그런 걸 못 느끼겠거든. 아, 기분 나쁘게 들진 마. 그냥 네가 명기나 뭐 그런 건 아닌가 보다, 그런 말이야.”

‘야동’ 체위 구사하던 남편 “당신에게선 느낌이 없어” 자존심 상한 부인의 답 “당신 사이즈는 어떻게?”

기본 나쁘게 들지 말라지만 기본이 나쁜 건 확실했다. 하지만 경험이 별로 없는 K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답이 서지 않았다.

내 남편, 뭘 배우고 컸길래

기다렸다는 듯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내가 조이는 느낌이 없잖아? 그게 웬지 알아? 내가 흥분을 못해서야. 여자는 오르카슴에 이르러면 자연스럽게 질 허부가 수축되게끔 되어 있어.

“앞으로는 나를 야동에 나오는 여자처럼 대하지마. 네 친구들한테 주위 들은 이야기를 나한테 대입시키지도 마. 그동안 뭘 배우고 컸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나를 대하지 마. 알았어?”

K의 서술에 놀랐는지, 아니면 단단히 빠졌는지, 남편은 말없이 침대에 눕더니 몸을 반대로 확하고 돌려버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K는 불을 끄고 누우며 한마디 덧붙였다.

“아 참, 기분 나쁘게 들지는 마.” <연애칼럼니스트>

리빙 센스

안경쓴 사람들의 눈 관리

안경이 틀어져 렌즈와 눈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된다. 안경테가 틀어지지 않도록 케이스에 보관을 하고 테가 틀어졌을 때는 안경점을 찾아 A/S를 받는다.

정기적인 시력 검사 안경을 써두고 해서 그 시력이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기라면 최소 6개월에 한번, 성인은 1년에 한번쯤은 시력 검사를 받는다.

필수영양소 섭취 눈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 B, B6, B12, C, E는 당근, 호박, 토마토, 부추, 시금치, 콩, 파슬리, 옥수수 등의 야채와 사과, 딸기, 키위, 감귤 등의 과일, 고등어, 참어, 뱀장어, 다랑어, 참치 등의 생선, 돼지고기, 동물뼈의 간, 달걀노른자 등에 많이 들어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3일(음 4월 19일 癸亥)

Table with 12 rows of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of May 23rd.

검색절정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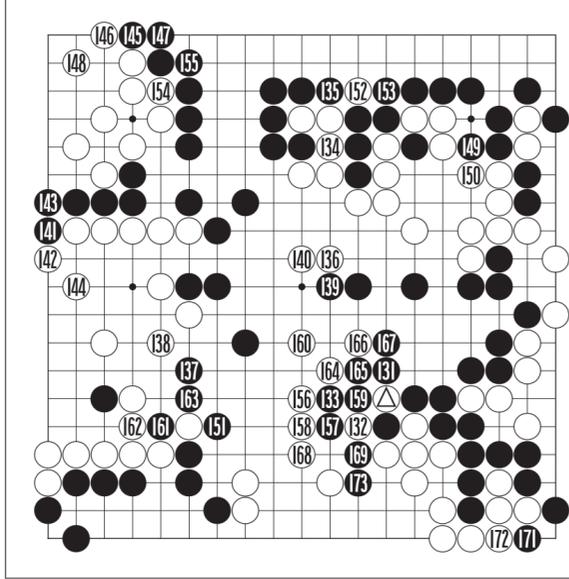
노점상 할머니가 한 청년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 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김밥 할머니 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의 동영상은 인터넷에 공개되자마자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노점상 할머니 폭행’ 분노의 글 폭주

고 밝혔다. 인기배우 김희선도 오랜만에 검색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월 탁산그룹의 며느리가 된 김희선이 임신 4주째인 ‘예비엄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미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연애(사진 오른쪽)와 3살 터울의 친연녀.



제4회 전국 아마 최강전 결승

백 △로 끊어 잡아서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흑을 따라 잡는 데 성공했다. 흑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처럼 저만치 앞서가는가 했는데 어느틈엔가 느리다 느리다 거북이가 특유의 끈질김으로 따라붙는데 성공한 것이다.

바둑소식

이민진 5단이 22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2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시니어 연승최강전 본선 8국에서 권갑룡 7단을 289수 끝에 10집반으로 이겼다. 이민진은 초반 중앙 대마의 공격을 잘 방어하면서 주도권을 잡았고, 차분한 끝내기로 승부에 종지부를 찍었다.

굿모닝 잉글리쉬 <1166>

What's all the commotion about? 왜 이렇게 난리지? A: What's all the commotion about? B: Did you hear about the car exploding? A: No. B: It was bad. Two people were hurt.

오하오우 니혼고 <1166>

今日はつきあわせてしまっておめんなさい。 오늘 따라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A: 今日はつきあわせてしまっておめんなさい。 B: いいよ。デパートっていろいろ物が売られておもしろいから。

니하오 쑹구위 <143>

你的笔是不是红的? 당신의 펜은 빨간색입니까? A: 你的笔是不是红的? B: 是红色的。 A: 这不是你的笔? B: 是我的。

한자 이야기 <183>

貪天之功(탐천지공) 탐할 탐, 하늘 천, 어조사 지, 공공 탐천지공(貪天之功)은 하늘의 공을 탐낸다는 뜻으로, 남의 공로도 자기 것으로 도용(盜用) 함을 비유한다.